

戊戌譜序

大概 사람은 누구든지 祖先으로부터 血脉을繼承받지 않은
사람은 있을수 없는바로써 譜牒은實로 이系統을考証하
는바 韓宗族의 史的文獻이라할수있으며 따라서一切를
배집없이 派系의區分과昭穆의倫序와아울러 故實을仔詳
히記錄함으로써 祖先의기록함을繼承하고 아래로後孫을
繼佑振作함에 큰도움이될것으로生覺되는바이다 詩傳에
云하얏으되 「文王孫子是本支百世」라하얏고 又曰「商之
孫子其麗不億」이라하얏 上古時代에있어서도 이미譜
籍이있어詳考함이 있었음을알수있거니와 우리李氏는新
羅와高麗以來 歷代로文顯勲業이 承繼되였음이記錄되어
있음은勿論 我太祖登極하실때에 鼻祖義安大君은 開國
一等元勳으로 其功績이一世에巍々하시고 派系가七房에
分하여 一門의繁榮이 其極에達하였으매 其後 端宗事
禍時의殉節로 一時거의 滅門之禍의災厄을 입었음에도

不拘하고 聖天의 加護와 쌓이고 쌓인 列祖의 蔭德으로

後裔는 다시 繁盛하여 派系는 八路에 世居하게 되었으나 一

面 世俗의 變遷과 아울러 昭穆을 밝힐 길아 두하고 同宗之

親의 惇睦을 期하기 困難한 情勢에 이르렀음으로 宗人有志

가 糾合하여 戊午로부터 丙戌丙午에 重刊이 있고 戊甲子

庚子에 이르러 諸宗이 歸一하여 大譜를 爰成하였으니 참

으로 多幸하다 할 수 있다. 그러나 庚戌國耻以來 倭政의 鐵鎖

의 強占 아래 窒息되었든 祖國이 第二次世界大戰의 終末과 더

불어 光復되었든 기꺼움도 瞬時로 化하고 國土는 兩斷되니

此れ는 分裂되었을 뿐 아니라 六二五事變의 民族의 一大悲劇

은 可히 筆舌로 形容되어서는 滄桑之 變과 同族相殘의 慘禍

를 招來하였음으로 流離分散된 各派系의 動態를 正確히 把

握하며 敦睦之 誼를 再建함이 무엇보다도 焦眉之急으로 切

實히 要請되어 茲에 各派系를 綜合하여 花樹會를 設고 다

시 大譜系를 訂하게 된 것으로서 다만 南北이 分斷된 現實下에

찌할수 없는바이나 以北에居住하는宗族이 叅譜할수없는
것은 斷腸의慨嘆을禁할수없는바이다 加지를뺏아뿌리를
찾으면 뿌리는오직하나이라 譜冊을열어 世系를詳考하
면 한祖先에累萬子孫이요 血脉所通의같은줄거리라 情
을따라感動한것이며 孝悌의마음이 油然而生될진저 不
肖가猥濫히 堪當하지못할重任임을알면서 오로지 先世
遺義를받으려惇睦之誼를세우고저 有志諸宗과誠意를받치
고저하노니 여러宗族은同心合力하여 爲先之道를至誠으
로힘쓰고 惇睦의義를向上하기로 盟誓할것을期待하며
大綱記錄하여 後日の叅考에一助가될가하노라

歲戊戌季春上澣

十七代孫

海翼

謹識

序

太極肇刊하여 陰陽이始分함으로 天地가있고 天地가온
대 사람이있으니 이이른바三才라 三才가운데 人生이
第一貴重하다하느바는 禮義廉耻와五倫三綱을아는緣故이

나 事親忠君之道를 면치 할지라 그런즉 흐르는 물도 根源
이 있고 茂盛한 가지도 뿌리가 있나니 況且 사람에 있어서는
오 주우리李氏는 新羅司空公後裔로 東方의 名門巨族
이요 鼻祖義安大君은 我祖開國元勲으로 太廟에 配享하
시고 冑子完川君은 太宗을 도와 佐命功臣이 되시고 完川
君之子贊成公은 端宗事禍에 殉節하시와 忠魂毅魄이 秋霜
烈日 같으실지라 祖先의 忠勲列節을 後世子孫으로 이어찌
慕치 않으리요 우리 譜牒을 紀成함은 先祖로부터 累代를 傳
하여至今 이르매 年久世遠하여 同族宗族이 八路에 散在함으
로 惇睦之誼를 세우며 昭穆의 尊卑를 상고키 爲함이요 또
한 先祖의 勲業과 忠節을 追慕할 일이니 後來萬代에 模範常詣
를 삼을 지어다 派流가 漸分하고 後屬이 疎遠하여 거의 路
上行人과 같으니 萬若 譜牒이 없으면 어찌 그 傳承을 알며
또한 그 昭穆을 分辨하리요 況且 六二五 動亂으로 말미암아
南北이 分裂됨으로 綜合지 못하게 된 것은 大端遺憾된 일이

나 어찌할 수 없는 일이라 事變으로 인하여 大君의 祔宇가
崩頽하였든中 宗中位員各位와 特히宗人主璘의 熱心誠
意下에 再建하게 되었으니 為先之道는當然한 일이나 各派
宗族은 이번 業績에 對하여 特別感銘의 意를表하지 않을 수 없
는 일이라 宗族各自는同心同意로 為先之道를第一인 生
覺할 것이요 第二로 惇睦之誼를主張하기 為하여 孝於親睦
於族하고 此루어一室之誼가되기를願하노라

歲戊戌季春上澣

十六代孫

周亨

謹誌

序

大抵族譜라하는것은 各人の氏族을譜合하여 先祖의明分
과 後世子孫의派系를 仔細히記載함으로써 親疎惇睦의
義를主로하여 위로祖先의功勳과德望을追慕할 것이요 아
래로子孫萬代에模範을할 일이라 오주우리李氏는 新羅司
空公以來로 東方의名門巨族이요 鼻祖義安大君은 定陵
의第二男으로시 八我朝開國元勳이시며 冑子完川君은佐

命功臣으로 獻陵에夾輔하여兩世元勳이며 諸家罕有하는
御訓이 계신 바이며 河寧君은 端宗士禍에殉節하시였을은
勿論 一門十六人이被禍하신故로 莊陵祭壇에配食하시는
대 後世子孫이各地方에 흩어져살때 年久歲遠하고次々
로代가벌어지니萬若이譜牒이없으면 어찌先祖에勲業과忠
節을記憶하며 各派系의先後와昭穆을알이오 然故로三十
年内外로 新譜를重修하여 後日參考가되게함이라 嗚呼
라三代不遷之位祠宇를建築하여 累百年香火를받으러오든
바 往者庚寅年六二五動亂으로因하여 祠宇가崩頽燒失되
였으니 어찌寒心치않으리오 오죽우리宗族은同心奮力하
여 爲先하는道理를힘쓸것이오三八線以北은兩斷된關係
로 어찌할수없거니와 在南派系子孫은無漏衆譜하시와
함씨諸宗으로더부러 親睦을主張할것이오 先祖의勲業과
忠節을받으러 墜落치않기를伏祝하는바이며 今番譜事に
若干의曲節이있었으나 各有司및特히主璘의誠心動力으로

處事順調로히進行되여 刊刻終了하고 祠宇重修호竣功하
게되였으니 如此功績과爲先事業을 永世不忘할뿐않이리
後生各自가 模範할것을생각할지어다

戊戌季春上澣

十六代孫

周慶

謹誌

序

惟我先祖 義安大君襄昭公은 出於 桓祖하시고仲於 太
祖하시當 聖朝龍飛之際하시以棟華之親으로奮忠同德이不
下周之周公召公也호協贊輔翼이亦比殷之伊尹傳說也호且
公之第二子完川君齊懿公之佐命功勲은赫々有兩호去元勲하시
配食於 太廟하시고至若 公之孫贊成公之殉節於 端廟하시
一門十六人이并被癸酉之禍하시配食於 莊陵祭壇하시若無譜
牒則何以知先祖之勲勞忠節이호何以知子孫之分派遠近哉호吾
家之爲譜하시自 英廟戊午創始而三丙三午乃至庚子甲子累回
重修也호挽近甲子譜하시距今三十四載而其後各派中出生死亡
嫁娶變動이不數則不可不更修乃已故호在京僉宗諸賢이發議

하야重開花樹會以修譜之意互協同結議進行하니豈非重且美
歟야況且大君廟宇가去六二五亂에至於火延燒滅하니爲其
子孫之道理에孰不痛嘆이시亦不寒心哉야際此修譜하야添筭
鳩財하야期圖重修하야以爲位牌奉安依舊享祀하니可免忸
怩且一宗中之幸福이孰大於此乎야當今之時하야南北이分裂
하니以北居住派는未得同譜하니雖曰遺憾이시然此亦勢也斗
奈何호非但今日之合譜斗後日에亦隨時永修無闕也夫호列

檀紀四二九一年戊戌李春十八代孫 輔漢謹序

序

惟我全州李氏는別於璿派하야新刊譜六冊也斗氏皆發源於新
羅司空公인시散處南北者其麗不千而先是譜凡四修也斗或
合以修之하야正或分以修之하니恭惟我義安大君은系出於
天家하야太祖定昇之日에及其子完川君協贊王室하야名
鐫竹帛하니昭如日星이시其孫河寧君은以端廟忠臣으로五
六人이同時立節하니忠魂毅魄이凜如雲霜하야此已著顯於史

乘則不必贅言加疊者也斗自庚戌杜屋之後互變沃이百怪層出
하야倫綱이幾絶하니族而不譜也不知祖宗之所自来斗子孫之
所自出하야視若塗人也니噫斗塗人者는蔡人也호越人也斗距
今甲子重修譜水己三十四星霜이니一代三十年이爲一修期也
斗迺者族宗海翼氏圭璘氏가峻發譜議하야僉謀歸同하야繕牒
於沃師하니及其竣印之日이顧余顙蒙으로叨隨諸宗之後하야
跨年功告訖하야略叙其顛末則惟願諸宗은母曰後屬之疎遠하
고克修敦睦之誼而三十年繼以重修를勿替引之則蘇明允所謂
觀吾譜油然而然者其在斯歟니斗諸宗은盍相與勉之哉하

檀紀四二九一年戊戌三月 日

十九代孫孔徽謹識

序

大抵萬物の榮枯는 天理의常道인지라 그러므로 國家의
富強으로호興亡이있고 民族의繁衍으로호盛衰가있는 이
循環의理를 벗어날수없이 우리先祖 義安大君의隆盛한當

時王 三代에 이르러 可謂滅門의禍를當하여 三百餘年沈
替零落하였다가 天道가 끝내 無心치않아 다시 全州李氏
義安大君子孫이라 는것을 世上에 알리게 되어 이列前後를
通해 凡六次의修譜를하게 되었으니 우리가 오늘날零星한孤族
임을免할수없으나 衰가다하고盛이깃트며 枯가 지나가고
榮이 찾아오는이지음에 또다시修譜를하게 되어 路人과 같
이지나든一族이 서로譜牒을한가지하여 行烈로서祖子孫
을區分하고年齒로써兄弟를分別하게 되니 어찌聖스러운일
이아니겠는가? 義安先祖의事蹟은 이미先行父老들의前譜
序文과 家乘事蹟으로여러번말한바이나 國家에서秘藏했
든國史가 世上에公布됨과同時에 先祖史實을다시奉審해
볼때 果然正道로서 國家創業에懷贊하시었고 一家內亂
을鎮定하시었고 兄弟의不睦을仲裁하시었으니 한갓勲功
만論할것이아니라 國家와社稷을위하시느遠大한偉業이
正義와常道임을엿볼수있는것을追想할때에 어찌積善의餘

慶이 없을 손가? 編纂의規模는 先例에 따라多少潤色했으며
特히宗族들의要請에依하여 前譜의序文과 大君事蹟및
失傳事實을 國漢文으로번역하여 當今에는大方家들의
嘲笑를免키어려우나 十年뒤이면오늘의賢明을 補道하리
라自負하는바임니다 不肖譜所의副會長이라는 자기를더
렸이여 끝내이일에關心하였고 여러族人들이不肖에게
序文을付托함으로 그任과文이모다아님을모르는바아니나
이것으로族譜의序라고하는바이며 幹事人여러분은末尾에
記名되것음으로 여기에는省略하고 오직바라는 말지
않는將來에 正修譜의舉措가있어 零替했든旣往을雪耻하
여 敦睦한宗族으로되 才德兼備한後孫이連綿하기를비는
바임니다

檀紀四二九一年戊戌五月 日 十九代孫德徽謹序

序

先祖義安大君의 기록하신業績과 墓所失傳이되있다가

다시奉審한事實은 이미先行들의序文과記錄에남어있으니
贅言을要치않았으나 이번修譜한데對해서 顛末을略述하
려는것은 庚寅動亂으로中斷되었든 花樹會를昨年봄에
서울清涼寺에서會集하여 祖先事業으로우선 大君先祖의
祠宇重建을合議한뒤에 다시工實行方法으로 三十餘年經
過한譜牒을續刊함과同時에 工收單物力으로 祠宇까지營
建하기로하고 會長에海翼氏副會長에德徽氏(其他는末尾
參照)監事에圭璘氏와및不肖를 任員으로選定하였으나
일은巨創하고財力은如意치않아 그동안圭璘氏의物心兩面
의助力으로 오늘날竣功을보게됨은 實로舉族이贊賀할바
이라 그리고이번修譜에있어 한가지特色은 여러宗人의
要請으로 從來의序文과 先祖事實을譯文으로登梓하였으
나 이런뒤에야 우리譜牒의由來와 先祖의史實을 누구
나 다알수있게될것이니 이어저便하지않겠는가? 그리고
大君祠宇도方今建築中에있으니 根本과祖先을追慕하는마

음으로 끝내 懷助하여 주신다면 얼마나 다행이 되리요?
이런 譜事는 모든 宗族의 懷助에 依한 功임을 感謝하며 數
言으로 顛末을 記錄할 뿐이외다

檀紀四二九一年五月

日 二十代孫圭復謹誌

序

譜牒의 重要한 것과 義安大君先祖以下世德 및 事蹟은 國史
家乘과 新舊譜序文에 이미 詳載하였으니 畫蛇添足의 衍文
은 省略하고 但今番刊譜의 所感을 陳述하려 함니다 祖上의
奉祀와 山所守護其他爲先事는 主로 宗孫이 專任하는 것임으
로 失傳하였던 大君의 墓所尋得하는 事와 局內에 犯葬한
他人의 古塚을 移葬시키는데 等으로 나뉘어 高祖께서 擊錚原情하
시고 여러 宗人들과 率先하시어 十八年間 山訟을 勝訴한 結
果 累代 惡恨을 풀어 三代 不遷之位의 奉祀에 遺憾이 없으니
六二五 動亂으로 祠宇가 燒失되어 位牌 奉安에 罪悶萬々하되
中在京宗族들이 花樹會를 열고 修譜하는 此際에 大君

祠宇重建을 收議하고 修譜를 急速推進하였으나 八域에 散
在한 宗族들의 收單이 自然遲延되었고 難關의 碍路가 層生
疊出하였으나 任員諸位의 始終一貫한 血誠과 勞苦의 結晶으
로 今에 譜牒이 竣工되고 繼續하여 祠宇重修도 推進中에
있으니 宗家의 立場으로서는 感服할 따름임니다 宗孫舍
伯이 病軔中임으로 敢히 舍伯을 代하여 頭緒있는 數言으로
여러 宗族과 任員諸位에 對하여 謝意를 表하야 次期修譜도
끊임없이 爲先烈誠을 밧니다

檀紀四二九一年戊戌五月 日

十九代孫範徽謹序

序

楚書에 無以爲寶而惟善이 以爲寶라 하고 晉文에 無以爲寶而仁
親이 以爲寶라 하니 吾家所寶는 卽子孫也니 與楚晉之寶도 大相
同而 近理矣라 蕭相國之子孫은 師其儉而不爲 勢家所奪하고 陸
機之詞賦는 先陳世德之峻烈也라 吾祖 襄昭公이 以 太祖如
手如足之親으로 翊戴王室하야 以 建萬歲洪基하고 五百有餘年

來帛先王疆土蔓延繁昌而嗚呼斗國步艱難斗正時局斗變遷斗
昨不守桑梓故里斗正離散八方及外邦斗伊來家道之索言不
言可鑑矣斗子孫斗雖在昏衢沈沒斗斗克紹先烈斗昨貽厥燕謨
之長策斗斗益懼夫湮沒無徵矣斗血脉之情斗情見于親斗正親
見于服斗正服始于袒免而至于總麻斗正總麻之外斗至于無服
則血脉之情斗已盡斗斗情盡則稍漸踈越斗昨視如塗人斗自此
始矣斗悲夫斗反以推其本源則自一人之身斗五分而至于塗人
斗自然變化造物之勢也斗收拾塗人之心斗正克敦和睦之誼斗
在於修譜斗斗譜者亡譜其氏族也斗別親踈明昭穆斗正名分
斗行列斗斗系其絕存其亡斗正官職生卒年月斗斗丘壠之原斗本
友派分源流之脉斗開卷瞭然則追遠感慕之誠斗非履霜而怵惕
斗正非濡露而悽愴之心斗油然而生矣斗斗奠一此譜例規節目
斗反此違越則無星之補無寸之尺斗斗何以參於人紀乎斗每思
簡易斗斗以存其博斗斗欲除浩煩斗斗以致其詳則庶幾乎稽古
之筌蹄斗斗世譜之捷徑也夫斗斗 戊戌季春十九代孫輔軾謹序

親有三親夫婦父子兄弟家之三親也族有九族高曾祖父子孫曾玄人之九族也祖宗精神血脉萃而為子孫云云者河南程夫子之說龜鑑有古也祖字之神靈均視子孫無親疎云云者范文正公并置義田宅則不為獨享富貴而廣濟宗族也自一人之身至於塗人親疎之別遠近之殊人道自然而至於肯堂肯構克約先烈其塗丹雘嗣後獎勵舉世皆然是故同歸而殊塗一致而百慮卽我禮義先王疆土仙李一脉新羅勝國之初根於乾止葉二千枝蔓延南北渾々萬派源流不息我祖襄昭公以王室棣萼之親化家為國以建萬歲定社之基配食太祖廟廷不食惟德及於來裔代遠時降氏族繁昌哀不相吊慶不相賀無異越視秦瘠奈何莫如收譜同心團結故在京諸宗腐心戮力克竣刊譜大君之祠宇燒失已經數載罪於祖愧於人幸以刊譜益金祠宇重建欣抃雀躍不後於人素以浦柳之質年將耄矣精神昏耗未衆譜役不可以不文無辭故略陳微衷如右云

戊戌季春

日

十九代孫

輔台

謹序

純宗皇帝隆熙四年庚戌七月에 所謂日韓合邦이 國耻以來日
 本의 虐政下에 全民族은 呻吟하다가 世界二次大戰終結과 同
 時에 祖國의 光復 곧 八一五解放을 맞이하였으나 不意의
 六二五事變으로 因하여 舉族의 慘狀은 歷史에 남여 있거니와
 우리 宗族들도 國土가 斷된三八線以北에 交流가 杜絶되고
 以南에 分散한 宗族들은 生計가 蕭然하게 되었으며 鼻祖大君
 의 祠宇는 兵火에 燒失破壞되고 賜牌山林은 赤山으로 化하였
 으며 位土는 大概가 失權되었고 宗孫의 家計는 痿縮하여
 不遷之位奉祀에 儀式을 갖추지 못한 旧境에 處하였다. 失傳
 한지 四百餘年만의 祇尋한 大君의 墓所와 十八年을 송사하
 여 찾은 賜牌局內의 松楸를 亂中의 濫伐하여 紫山이 되고 國
 家에서 下賜하신 物力으로 重建하였던 祠宇가 兵火로 말미
 암아 燒失되어 莫重한 大君의 位牌奉安과 享祀等節을 모았
 이 하거 되었으니 爲其子孫하여 얼마나 痛歎한 일이라 端宗

癸酉에 一門 十六人이 慘死하고 禍家餘生으로 流離漂泊하였을 그當時는 不得已한 일이나 漸次로 生業에 基盤을 닦아 再建途上에 이른 今日에 어찌 爲先事를 等閑이 하랴 在京有志宗人들이 蹶起하여 花樹會를 開催하고 會長 海翼氏以下 諸任 貢을 選定하고 大略 아래와 같이 決議하였다

一 甲子譜以後 譜牒을 重修하여 先祖遺勲을 追慕하고 各地宗人의 散在狀況을 調査하여 族誼敦睦을 圖謀하자

二 祠宇를 再建하여 大君先祖의 神位를 奉安하고 享祀의 禮를 奉行하여 尊祖精神을 後世에 繼承시키며 爲孫의 道理를 率先窮行하자

三 墓所領域의 山林을 造林保護하여 大君墓所의 周圍를 美化하며 아울러 山林綠化의 國策에 順應하자

四 失權된 位土를 可能한 限 復權整理하여 宗孫의 家計安定을 圖謀하여 享祀에 不便이 없도록 協助하자

五 花樹會를 補強하여 宗財를 保護管理하며 財源을 造成하여

爲先事業과山下居住子孫의育英事業에地方宗人의省墓、祭祭의便宜를圖謀하여慕祖精神과愛族心을더욱더鼓吹涵養하자

以上의要旨를贊同하는在南宗人은今番譜牒續刊에欣然參加하여獻身的으로奉仕하기를決定하고刊譜의利益金은祠宇建築에使用하기로하고丁酉五月에그實行을着手하였던바進行途中一部宗人中沒知覺한非行事件이發生하니事業은中斷狀態에陷하였던것인데多幸으로都有司海翼氏以下在京宗族任員諸位는此等隘路의難關을克服하고物心兩面의互援을아낌없이發揮하여譜事를繼續하기로決定한것이다이에際하여事後整理對策과刊譜業務를不肖에게專任하니賤識菲才로任大責重하여遂行하기至難할뿐아니라家累가絆身하여汨沒無暇임으로再三固辭하였으나諸位의勤囑을難負일뿐아니라爲先事に取便為主하는것같이單只誠과熱心始終一貫하였다는一念下에實踐邁進하여凡六卷의大

派譜編修를完成하였으니 이는오로지都有司海翼氏以下在京宗人諸賢의支持協力의功이큰것으로感銘하며 某宗賢이過分の讚辭를주신데對하여는汗顔을不禁하는바이다

宗中財産管理保護委員會의實行事件을列舉하면

(復權된財産目錄)

一林野二筆 面積 一六〇町三反五畝

二田 一筆 三二七坪

三畚 六筆 五七〇五坪

四垡 一筆 二八九〇坪

以上은宗財産管理委員會十六人의共同決議로써 代表者宗孫主

烟名義로檀紀四二九一年一月三十一日附屬所有權保存登記

를完了하였다 그리하여宗孫의生計와奉祀에一助가될줄민

는다 今番各地宗人은以上趣旨에共鳴協助하여주시어有功

의美를거두게한데對하여는萬々感謝하나 一部地域의宗人

은本趣旨가認識되지못함인지 微温的態度를였볼수있으니

遺憾으로生覺하는바이니後日이라도他宗人에 못지않게慕祖愛
族心이發露있기를바라노라今譜序文篇은古典式漢文綴字인故
로短識者讀解하기여려움으로한글綴字로譜譯하야알기쉽게改
編하엿으니此祠宇再建工事計劃로繼續推進中이니財政等難關이
重疊함으로諸宗以至大社協助를바라며不肖所任完遂까지至公
無私精神으로邁進할것을彈明하야所懷一端을跋末에쓰노라

檀紀四二九一年(戊戌)季春 日

二十代孫 圭璘 謹跋

義安大君襄昭公世譜卷之一

義安大君和

子順川君之崇 官判教寧

子河善君壽 官萬戶

桓祖弟
二男
定安翁
主金氏
出

歸三樂亭特進大匡輔國崇大
夫領議政領三司義興三軍府事

判都評議使司事

太祖成實錄開國一等宣社一等有勲

太宗庚辰錄佐命一等有勲策勲或
純或忠或奮義

太祖壬申七月十一日有開國功臣前會
盟文而以姓名某等敢明告于皇天

后土松嶽城隍一功神祇 二樂亭記

領相鄭道傳著忌十月七日謹襄
昭 墓楊州溪金面坪內里元上通

面板谷里秋積山栢降下已坐有碣

太宗庚辰七月二十五日配食

太祖高皇帝上廟庭親製教文曰唯

卿以積善之親同心同德相應相求
而又暨諸一時忠義之臣發次大義

戴

太祖化家為國以達萬世之基而以親筆

書之末端書國王二字下有御押

肅宗必寅有御筆兩世元勲一門奇

節八字

英宗乙未有 御製致祭文

正祖乙未有 御製致祭文

純祖壬申有 御製致祭文甲申墓所

改封築時有 御製致祭文

大君孫河寧君穰在

子完川君淑

崇祿大夫判司
評府事

太祖庚辰錄佐命一等勲封君忌正

月二十四日謹齊齋 墓廣州蘆

古介日案失傳

配貞敬夫人河陰奉恩五月一日

墓相父密直堂旨文祖政堂文

學文謙公天祐曾祖版圖正即

爾外祖政堂文學李彦冲全義人

子河寧君穰

崇祿大夫議政
府右贊貳

太宗辛巳錄佐命二等勲端宗癸酉與

三相臣殲節一門十六人同禍事載

莊陵誌及公州東歸寺拓魂園記

肅宗戊寅一門同神聖 更祖辛亥配

食莊陵忠上壇大宗英位次高

宗全矣贈謚忠毅子若孫從第

從子十二人并設贈謚之典而宗正

卿李重夏上疏大提學南廷振謚

狀 配貞敬夫人礪山宋氏父佐命功臣

礪良府院君忠靖公居信祖贈右

議政唐曾祖右贊成臺山外祖辛

貴靈山人

子河陵君獲

敦寧都正忌十
月十七日墓白

川鉢山面虎山

配貞敬夫人順興安氏忌十月十三

日墓相父左贊成環祖牧使贈吏判

從約曾祖典書景贊公緩外祖復興

君肅親公趙胖白川人

女安玖順興人判事父牧使從約子安